

# 프락(FRAC) 사례 분석을 통한 전시공간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공간구조 연구

-미셸 푸코의 생산, 순환, 소비의 통치성 개념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New Social Role of Exhibition Space through Case Study of FRAC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Production, Circulation, Consumption in Michel Foucault's  
Governmentality -

○정 태 종\*  
Jeong, Tae-Jong

### Abstract

For the research of new social role of exhibition space, investigation on characteristics of FRAC(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which is focused on the change of social role has been conducted. The program, site plan, spatial composition, organization system of 23 FRAC in France a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ed. First of all, the social roles of exhibition space are developed and changed from exhibition, connection with interior and exterior space, diverse circulation, social contact, urban regeneration through social demands. The second one is that FRAC is the localized contemporary art platform which is focused production, circulation, consumption of art in all regions of France. The third one is that the new social role of exhibition of FRAC can be explained with Michell Foucault's governmentality and spatial composition of FRAC is allocated and designed according to new social role. Based on the result, the new social role of exhibition space reveals the diversity and networking of contemporary society and it can be explained with governmentality by Michell Foucault.

키워드 : 프락(FRAC), 전시공간, 사회적 역할, 미셸 푸코, 통치성

Keywords : FRAC(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Exhibition Space, Social Role, Michelle Foucault, Governmentalit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전시물의 진열과 보관의 공간에서 시작한 전시공간은 미셸 푸코의 도시 공간 관점에서 보면 유토피아나 도시의 다른 일상의 공간과 차이가 나는 이질적인 공간이며 이는 사물의 질서를 전시하면서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로 확장하고 전시에서 배치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주체의 자기감시로 내재화하게 된다.

또한, 전시공간은 역사적으로 미술품을 위한 폐쇄된 배경인 화이트 박스(White Box)에서 시작하여 주변환경과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의 도입, 결정된 계획된 동선에서 자유로운 동선의 선택, 유연한 사회적 공간에서의 접촉, 도시재생의 프로그램으로까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처럼 전시공간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이면서 전시라는 기능의 단순하고 단일한 공간에서 복합적 문화의 공간구성으로 진화했는데 최근에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시공간의 사례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프랑스 지역현대미술기금인 프락(FRAC, 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Regional Contemporary Art Collection)은 중앙정부나 기업 소유의 단일한 독립 건축물로 구성되는 기존의 전시공간과는 다른 지방 자치제를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미술관 네트워크 체제로 연결되는 기존과 다른 전시공간의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전시공간과는 다른 시스템과 공간 특성을 가지는 프랑스 프락 전시공간의 사례 분석에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전시공간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단국대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강의전담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l2200482@dankook.ac.kr)

## 1.2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프랑스 지역현대미술기금인 프락을 통하여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공간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 전시공간과 다른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전시공간의 형성과 더불어 시대에 따른 역사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 공간구성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는 최근 프랑스의 지방 자치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프락의 배경과 현황, 의미 등 분석을 통하여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역할과 그 특성을 파악한다.

세 번째 단계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그 의미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성 변화가 나타나는 공간적 분석을 통하여 전시공간 변화의 건축적, 사회적 의미를 검토한다. 검토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추후 또 다른 전시공간의 변화 방향성과 함께 기존 공간구조의 보완 및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다.

## 2. 전시공간의 사회적 역할과 푸코의 관점 고찰

### 2.1 전시공간의 사회적 역할과 공간구성

전시공간은 형성된 초기에는 전시 대상물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인 백색 상자의 공간에서 시작하여 외부와의 시각적 교류와 차경을 통한 개방적 공간, 주어진 강제동선에서 벗어난 다양한 선택적 동선을 통한 사용자의 자율성 강화, 도시 속 공공공간으로 주변환경과의 연결망과 허브, 구도심 재생의 프로그램 대안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Table 1).<sup>1)</sup>

Table 1. Characteristics of Social Role and Spatial Composition in Exhibition Space

유형	내용	사례	건축개요
전시	교육목적 전시물의 배경	Guggenheim Museum, New York	1937년 아트리움 근대건축
조망	내부동선 외부조망 자연과의 교류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Humleback	1966년 국제 양식
선택 동선	동선의 선택 개인의 경험	Museum Het Valkhof, Nijmegen	1999년 자율성
사회적 접촉	사회적 접촉 우연성	21st Century Art Museum, Kanasawa	2004년 현대건축
도시 재생	도심부 환경 문화유산이용 지속가능성	Tate Modern, London	2000년 산업시설 리모델링

<sup>1)</sup> 정태중 (2020). 전시공간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공간구조와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71. p. 40.

전형적인 전시공간은 백색의 내부공간으로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을 배치한다. 공간보다는 전시 대상물이 더 중요하여 전시품에 집중하기 위한 건축적 장치와 공간이 시도된다. 이후 폐쇄적인 전시공간은 주변 환경과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물리적 연결을 통하여 조망과 차경을 전시공간과 연결해 공간의 시지각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전시의 순서와 배열에 의한 강제동선과 시각적 매체를 통한 교육은 점차 자율성을 띠며 자유로운 공간의 선택으로 확장하며 이는 전시공간의 방문 목적이 아닌 우연한 사회적 접촉을 형성하는 일상의 공공공간으로까지 변화한다. 공공공간으로의 확장은 구도심의 문화 프로그램과 도시재생의 기능으로 연결되어 전시공간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공간이며 공공공간이 된다. 그 결과 전시공간은 단순한 역사적 전시품의 집합 공간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능동적 사회 활동의 장이 되며 전시공간의 다양한 유형과 공간구조에 대한 제안으로 미술관은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 2.2 푸코의 관점-사회적 공간으로서 전시공간

미셸 푸코는 서유럽을 바탕으로 16세기에서부터 약 500년이라는 특정 시기와 공간을 분석하여 역사적 변천과 도시 공간적 특성을 통하여 기존 관념을 깨고 에피스테메(Epistheme)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등 새로운 시공간 관점의 해석을 시도했다. 푸코는 전시공간에 대해 특정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선(Gaze)을 통하여 현상학적인 관점이 아닌 역사적 지층을 형성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는 방법과 지식, 권력, 통치, 윤리의 영역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관점을 적용하면 특정한 전시공간의 공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푸코가 미술관과 연결하여 제기한 테제들은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미술관, 지식의 배치, 시선의 권력 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2)</sup>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미술관은 기존의 도시 속 일상과는 다른 곳으로서 무한대로 축적된 시간의 공간으로, 서로 다른 대상들의 공간으로 사물들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념과 사물의 차이를 경험하는 공간이다. 푸코는 고고학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미술관을 지식이 다양하게 배치되는 조건들을 파악하고 사물의 질서를 전시하여 사물과 개념 간의 차이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해석한다. 또한, 미술관을 대중들에게 질서의 힘과 원칙을 보여주는 규율과 배열의 권력을 통해 훈련과 학습의 공간을 건축적으로 구축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셸 푸코에게 전시공간을 사회의 일상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공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통치를 위한 권력이 시각화되고 미분화된 곳이라 할 수 있다. 푸코의 해석은 기존의 전시공간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나 현대사회의 전시공간은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통하여 진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전시공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sup>2)</sup> 강정민, 김동일 (2012). 미셸 푸코와 미술관에 대한 테제들. 인문연구 66. p. 136.

### 3. 프락의 사회적 역할과 공간구성 분석

#### 3.1 프락 배경과 현황

프락은 프랑스 전역에 분포된 지역현대미술기금(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을 지칭한다. 현대미술의 생산과 순환과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공간인 프락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 1982년 파리에 집중되어 있던 중앙집권적 문화예술 정책을 지방 분권화하고자 지원하면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지역 문화 사무국인 DRAC(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을 설립하였고 각 지방 정부와 협의를 통해 다수의 새로운 미술관을 형성하였다.<sup>1)</sup> 현재 프랑스 전 지역에 23개의 미술관, 다양한 국적의 6,000명 이상의 작가들, 35,000 이상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전국 네트워크인 플랫폼(Platform)을 형성하였다(Table 2).

Table 2. The 23 FRAC collections in France

Name	City
FRAC Alsace	Sélestat
FRAC Aquitaine	Bordeaux
FRAC Auvergne	Clermont-Ferrand
FRAC Bourgogne	Dijon
FRAC Bretagne	Rennes
FRAC Centre-Val de Loire	Orléans
FRAC Champagne-Ardenne	Reims
FRAC Corse	Corte
FRAC Franche-Comté	Besançon
Le Plateau/FRAC Ile-de-France	Paris
FRAC Languedoc-Roussillon	Montpellier
FRAC Limousin	Limoges
FRAC Lorraine	Metz
Les Abattoirs, Musée - FRAC Occitanie Toulouse	Toulouse
FRAC Nord-Pas-de-Calais	Dunkerque
FRAC Basse-Normandie	Caen
FRAC Haute-Normandie	Sotteville-lès-Rouen
FRAC des Pays de la Loire	Carquefou
FRAC Picardie	Amiens
FRAC Poitou-Charentes	Angoulême
FRAC Provence-Alpes-Côte d'Azur	Marseille
Institut d'art Contemporain	Villeurbanne
FRAC Martinique	Fort-de-France

프락은 기존의 전시공간과는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그 중 현대예술의 창작 활동 지원, 현대예술 작품을 미래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확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로 위치하여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등 조직의 유연성과 실험 정신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3.2 프락의 공간구성 및 조직 운영 특성

프랑스의 현대미술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의존성이 높다. 설립된 시기인 1980년대 프랑스의 지방정부가 총 23개로 나누어져 있어 23개의 미술관이 형성되었다. 설립 목적이 창작 활동 지원과 미술 문화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전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프락의 지리적 위치와 분포는 도시의 중심보다는 외곽에 위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설정된다.

미술관의 운영은 국가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 하에 있지만, 자체 독립된 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각각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관계에서 공유와 유연한 협업 관계가 나타난다. 운영방식은 지역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며 주로 전시기획, 소장품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 특히 23개의 네트워크를 위한 조직인 플랫폼은 공유형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류와 활동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며 예술 작품의 수집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는 중심 조직이다. 각 프락은 지역적 특수성, 소장 작품의 내용 차별성, 건축물의 디자인과 역사성, 기획 운영방식 등을 통하여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각 미술관은 단순히 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와 수집에 일정 비용과 공간을 지원하여 현대미술 작품 수집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각 지방 미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각 지방 학교와 전시관의 협력으로 주민들과 거주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예술 교육 환경도 개선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다른 지방이나 해외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순환 전시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폭을 넓히고 있다.

#### 3.3 프락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통치성의 개념

미셸 푸코는 특정 권력이 근대사회로 오면서 경제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경제학으로 확립되면서 기존의 추방과 격리에서 벗어나 통제와 관리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조절의 수행되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근대사회의 규율 권력과 제도는 위법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와 정상화를 위한 장치이며 도시 공간의 분할도 규율을 통한 조절, 통제, 관리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는 주권과 대립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다. 이러한 규율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인 내치의 통치성은 전반적인 도시화 속에서 모든 분야의 규율로 작동한다. 그러나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통치성으로 전환되는데 그 특성은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 생산, 순환, 소비의 과정을 만드는 과정, 인구와 연결한 공중위생, 규제가 아닌 조절과 안전메커니즘의 확보, 자유주의 등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통치성 특성을 정리하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생산, 순환, 소비하고 권력의 통제보다는 안전메커니즘을 통한 조절을 통해 자유로운 시민 사회가 된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지식-권력-통치의 연속적인 연계로 서유럽 특정 시기의 지배 원리로 이해되므로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sup>1)</sup><https://www.culture.gouv.fr/en/Thematic/Plastic-arts/Plastic-Arts-in-France/Regional-Contemporary-Art-Funds>

이러한 푸코의 지식-권력, 주체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순환의 통치성을 예술 분야와 전시공간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전시공간과 다른 프락만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체와 생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프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지만 독립된 운영조직으로 자율적이며 미술 작품을 위한 창작자의 지원과 소장 작품의 선정 등 민간과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이는 미술 작품을 직접 발굴하는 방식으로 통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의 역할이 명확하다.

순환과 소비의 관점에서 프락은 기존 다른 미술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23개의 미술관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23곳에서 발굴한 다양한 작품을 이용한 미술 작품의 순환 전시가 가능하며 실제로 타 미술관과 비교해 순환 전시 작품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각 프락은 예술품의 규모와 사용자의 활동으로 미술관의 공간이 결정되는데 대다수 공간은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현대건축을 이용한 새로운 미술관이 설립되었다. 그 결과 전체 조직 내에서 6개의 대형 미술관과 그 이외의 미술관 등 2개의 네트워크로 구분되어 효율적인 조직이 된다. 각 지방에 분포된 23개의 미술관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미세하게 나누고 조절이 가능한 조직으로 분화된다. 이는 전염성의 시대에 격리라는 통제나 규제보다는 접촉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질병을 조절하듯이 미술관과 현대예술작품은 기존 미술관 내부에서 전시하는 시각적 지식과 배치의 권력이라는 기능에서 벗어나 교육 프로그램, 외부공간에서의 전시 등 새로운 방식으로 안전장치의 통치가 될 수 있다. 프락의 통치성 개념과 관련된 요소와 그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ocial Role and Spatial Composition in Exhibition Space

요소	내용	특성
생산	예술품의 직접적 생산	교육 프로그램 예술가 발굴
소비	예술품의 전시, 관람	예술의 직접적 소비
순환	23개 네트워크	프락 간 연결, 교류
효율	대형 조직의 경제성	직접 생산과 직접 소비의 연결, 네트워크
조절	통치 가능한 조절	자치조직, 통치 가능한 중앙 조직

#### 4.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 프락 전시공간이 가지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시스템과 공간 특성의 분석에 따른 푸코의 통치성 개념 적용을 통하여 기존 전시공간과는 다른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공간은 전시에서 외부와의 연결, 사회적 접촉, 선택동선 등 공간구성의 변화와 함께 이질적 공간, 지식의 배치, 시선의 권력 등 사회적인 공간으로 발전한다.

2. 프랑스 지역현대미술기금, 프락은 프랑스 전역 23개 지방 분권화의 현대미술 플랫폼으로 예술의 생산, 순환, 소비 등 기존과는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한다.

3.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프락에 적용하면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새로운 예술의 직접 생산과 소비, 교류와 순환이 발생하는 통치성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교육, 외부 전시 등 관련된 공간구조가 나타났다.

전시공간은 기존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구조로 변화되어왔으며 최근 프락의 분석 결과 푸코의 통치성 개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공간이 형성함을 알 수 있다. 통치성이라는 전시공간의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은 단일공간에서 복수의 연결된 네트워크 공간으로 확장하며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정민, 김동일 (2012). 미셸 푸코와 미술관에 대한 테제들. 인문연구 66. pp. 135-160.
- 2.곽정윤 (1997). 현대 공공미술관 전시의 사회적 기능 :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3. 김건희, 정태중 (2023). FRAC의 시스템 분석을 통한 기존의 미술관과 다른 구조적 이점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3(2). pp. 945-948.
4. 김호진, 한승주, 정태중 (2020). 전시공간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1). pp. 456.
5. 백승만 (2009). 건축의 창작성과 대중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축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11). pp. 133-140.
6. 백용운 (2008). 미술관 전시공간에 사용되는 공간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8). pp. 141-149.
7. 오창룡 (2017). 프랑스 문화정책의 분권화와 시장화 : 리옹의 창조도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4(1). pp. 129-153.
8. 정중효 (2019). 현대미술 지원을 위한 프락(Frac)의 전략적 운영에 관한 연구.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6(2). pp. 141-154.
9. 정태중 (2020). 전시공간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공간구조와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71. pp. 39-46.
10. 콜린 고든 외 2인 엮음. 심정보 외 5인 옮김.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서울
11. <https://www.culture.gouv.fr/en/Thematic/Plastic-arts/Plastic-Arts-in-France/Regional-Contemporary-Art-Funds>